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 제 혁 신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2016년 12월 1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.방송.통신 12.11(일) 오전 11시엠바고)

배포일시	2016. 12. 10. (토)	담당부서	전력산업과, 에너지신산업정책과
담당과장	김성열 과장 (044-203-5240) 유법민 과장 (044-203-5360)	담 당 자	임기홍 사무관(044-203-5254) 안근영 사무관(044-203-5362)

◈ 올 겨울 사상최대 수요에 대응해 철저한 수급안정대책 시행 ◈

- 주형환 산업부 장관 인천복합화력 방문, 동계 전력수급 상황 점검
- 올 겨울 전력 최대수요(피크)는 1월 중순 8,540만kW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
- 피크시(1월 2~3주) 공급능력은 9,943만kW로 충분한 예비력 확보
- 누진제 개편시 주택용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, 아파트 변압기 등 철저 점검

□ **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**12. 11.(일)** 수도권 전력공급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중부발전 **인천복합발전소*를 방문**했다.

* 인천지역 전력수요의 24%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설비 운영

○ **겨울철 전력수급 상황**을 **점검**하고 이상한파 등에 대비 **철저한 전력수급 안정대책**을 **추진**하기로 했다.

< 점검 개요 >

○ 일시·장소 : '16.12.11일(일), 14:00 ~ 14:50, 중부발전 인천복합발전소
○ 참석자 : 산업부 장관, 한전·한수원·발전5사·전력거래소·에너지공단·전기안전공사 사장 등
○ 점검내용 : ① 동계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, ② 전력설비 안정운영 점검

○ 주 장관은 신규발전소 준공, 정비중이던 발전기 투입 등으로 **올 겨울 전력수급은 전반적으로 안정**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,

- **예기치 못한 수요증가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**할 것을 한전·발전사 등 전력유관기관에 주문했다.

○ 주 장관은 발전사에 대해 **설비고장 예방**, 한전은 **노후 아파트 및 대형 수용가의 정전예방**, 전력거래소는 **실제 위기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비상자원 운**영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.

○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**에너지 절약의 꾸준한 실천**과 **공공부문의 선도가 필요**하다고 강조했다.

□ 한편, 산업부는 **12. 12. (월)**부터 **동계 전력수급대책을** 전력수요가 큰 **2. 17. 까지 약 2달 동안 시행**한다.

□ 올 겨울 **최대전력 수요**(피크)**는 역대 최고***인 **8,540만kW 수준으로 1월 중순**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* 최근 최대전력(만kW) : ('13 겨울) 7,730 → ('14 겨울) 8,015 → ('15 겨울) 8,297 → ('16여름) 8,518

○ **피크시 전력 공급능력은 9,943만kW로서 1,403만kW 수준의 예비력**(예비율 16.4%)**을 안정적으로 유지**할 전망이다.

- 신규 발전소 준공, 정비중이던 기존 발전소 재가동 등 전력공급능력을 극대화해 사상 최대 전력수요에 대비하기로 했다.

○ 다만, 이상한파가 닥칠 경우 피크수요는 최대 8,700만kW 수준까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능력을 최대로 유지하기로 했다.

□ 이러한 전력수요에 대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**공급능력 극대화**와 **수요관리 강화***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.

* 수급여건에 따라 피크감축을 위한 수요관리를 시행(14개 수요관리사업자, 388만kW)

○ 우선, 대형 발전기 불시고장 등에 대비해 올 겨울 피크 기간(1월2~3주)에는 **전국 거의 모든 발전기를 가동준비 상태로 유지**하기로 했다.

* 국내 발전기 381대 중 불가피한 정비 10대를 제외한 모든 발전기 가동대기 상태 유지

- 또한, 발전기 고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전사별로 **고장예방 활동을 강화***하고, 고장빈발 전력설비는 **산업부 특별점검**을 실시했다.

* 고장원인 분석, 고장다발 설비 특별관리 실시, 중과실인 경우 관련자 문책 등

○ 돌발상황 발생으로 예비력이 급락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책도 마련해 단계별로 실시한다.

① 예비력 500만kW 이하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 발생시 시운전 출력*, 수요자원거래시장** 등 긴급 가용자원을 적기 활용하여 예비력을 500만kW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.

* 시운전 출력(만kW) : 장문1(45), 대우포천(48), 위례(23), GS당진4(45)

** (규모) 388만kW, (참여자) 대형 공장 및 상가, (발동) 전력거래소 감축지시

② 예비력이 500만kW 이하로 저하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전력수급 위기경보단계별 비상대책도 완비했다.

* (300~500만kW) 전압조정, 공공 비상발전기 가동, (100~300만kW) 긴급절전, 석탄 최대출력

□ 또한, 올 겨울은 완화된 누진제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, 주택용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**공동주택 전기설비 고장 최소화**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○ 특히,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난방 증가로 아파트·주택 전기설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.

- 위험요인이 있는 **개별 아파트 소유의 노후 변압기 등에 대해서도 한전 주도의 특별점검과 관리***를 통해 고장발생을 최소화 노력할 예정이다.

* (대상) 25년 이상 또는 세대당 2kW미만으로 설계된 아파트 2,638개 단지

□ 아울러, 3천여개의 대규모 상업시설 등 한전 관리영역은 아니지만 **정전시 영향이 큰 수용가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***을 통해 정전사고 예방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.

* (대상) 코엑스 등 연면적 5천㎡이상 다중이용시설 2,785개소, 전통시장 193개소

□ 이번 동계 전력수급대책과 함께 산업부는 시민단체·기업이 참여하는 **동계 절전캠페인**을 **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.**

○ 공공부문은 실내온도 의무준수(난방온도 18℃ 이하 원칙),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

* 지자체 청사 등에 대해서는 불시 난방온도 점검 실시(12월중) 및 위반기관 공표

- 민간부문은 적정 난방온도(20℃ 이하) 권장, 개문난방 영업자제 홍보 등을 통해 자율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로 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김성열 과장(☎ 044-203-5240), 임기홍 사무관(☎ 044-203-52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